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쉐보레 중형 SUV ‘이쿼녹스’ 직접 타보니…

쉐보레 이쿼녹스는 고효율 다운사이징 디젤엔진과 전자식 AWD를 적용해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높였다. 햅틱 시트를 포함한 전방위 첨단 안전 시스템을 전트림에 기본 탑재한 것도 특징이다. 사진제공 | 쉐보레

# 진동으로 충돌 경고…‘햅틱 시트’ 물건이네!

〈GM 특허 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

**첨단 안전사양 전 모델 기본 장착**
**차체 82%에 초·고장력 강판 사용**
**AWD 온·오프로 연료 효율 높여**
**기본기 탄탄·가격 경쟁력도 충분**

쉐보레가 경영정상화 이후 첫 신차로 중형 SUV 이쿼녹스를 출시했다. 중형 SUV는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쟁도 치열한 세그먼트다.

이쿼녹스는 어떤 주무기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을까. 시승을 통해 느낀 이쿼녹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안전’,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뛰어난 효율성’이다. 19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왕복 100km 구간에서 이쿼녹스를 시승하며 장단점을 살펴봤다.

**쉐보레 이쿼녹스 제원표**

| | | |
|---|---|---|
| 전장(mm) | | 4,650 |
| 전고(mm) | | 1,690 |
| 전폭(mm) | | 1,845 |
| 축거(mm) | | 2,725 |
| 공차중량(kg) | | 1,645 |
| 배기량(cc) | | 1,598 |
| 엔진 | | 1.6리터 CDTi디젤 |
| 최고출력(ps / rpm) | | 136 / 3,500 |
| 최대토크(kg.m / rpm) | | 32.6 / 2,000~2,250 |
| 변속기 | | 6단 자동변속기 |
| 연비 (km/L) | 복합 | 13.3 (AWD: 12.9) |
| | 고속 | 14.9 (AWD: 14.4) |
| | 도심 | 12.2 (AWD: 11.9) |

**●탄탄한 기본기·풍부한 안전사양 돋보여**

현대 싼타페, 기아 쏘렌토, 르노삼성 QM6 등 쟁쟁한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 이쿼녹스의 확실한 장점은 기본으로 장착한 풍부한 안전옵션이다.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SUV를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옵션으로 있는 안전사양들 자신에 맞게 더하거나 빼는 일이다. 이쿼녹스는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중요한 셀링 포인트다.

이쿼녹스는 GM의 특허 기술인 햅틱 시트(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의 첨단 안전 시스템을 전 모델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없을 때는 필요할까 싶지만 익숙해지면 안전 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양들이다.

주행감성은 어떨까. 이쿼녹스는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기가스틸 20%를 포함, 차체의 82% 이상에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채택했으며, 주요 부위에 격벽을 설치해 이전 세대 대비 22% 이상 높은 차체 강성을 실현했다.

단단한 차체 강성은 기본기인 달리기 능력을 높여주는 요소다. 특히 고속주행 시 진가가 드러난다. 일단 단점부터 말하자면 이쿼녹스는 중·저속 영역에서는 경쟁 차종들 중 승차감이 가장 떨어진다. 노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편이다. 하지만 고속 영역에서 스포츠 주행을 해보니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온다.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이쿼녹스는 1.6리터 CDTi 친환경 디젤 엔진에 3세대 6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2.6 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공차중량 1645 kg으로 이전 모델보다 차체를 경량화해 일상 주행에서는 파워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2.0 디젤엔진에 익숙하다면 다소 부족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고속영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쾌적하게 쭉쭉 나가는 느낌이다.

효율성은 만족스럽다. 시승모델은 상시사륜구동(AWD)을 장착한 풀옵션 모델이다. 이쿼녹스는 AWD를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온·오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AWD를 켰을 때는 12.1 km/L, 끄고 달렸을 때는 15km/L 수준의 연비를 기록했다.

이쿼녹스의 가격은 LS 2987만원, LT 3451만원, 프리미어 3892만원이다. 전자식 AWD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하면 200만원이 추가된다. 기본형(LS)의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파주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현대모비스는 안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생산중인 램프 제품에 일괄 적용했다. 사진은 현대모비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K9의 헤드램프. 사진제공 | 현대모비스

## ‘안개 끼지않는 차량 램프’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자동차 램프 업체들의 난제였던 램프 안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소재업체 이니츠(SK케미칼 자회사)와 소재 개발에 착수한지 1년 6개월만에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전 모델에 신소재를 적용해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해당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국내외 공동특허출원도 진행 중이다.

램프 안개는 내부의 플라스틱 구성품에서 발생한 가스가 벽면에 흡착돼 뿌옇게 착색되는 현상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해결 방법을 고심해왔지만 소재 개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근본적인 해결보다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왔다.

현대모비스 샤시의장연구소장 김세일 전무는 “램프는 소재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로현상마저 불량으로 평가할 정도로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미적인 부분의 기준도 높은 부품”이라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차에 적용되는 혁신적인 램프 소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오는 7월30일 울릉도에서 113년만에 돈스코이호 각종유물 잔해등 전시 공개

신일그룹, 보물선 돈스코이호 전 세계 최초 공개

중국 국영기업 CHINA YANTAI SALVAGE,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참여결정

울릉도 바닷속에 150조 원의 보물을 싣고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6천200t급)의 유물과 잔해가 침몰 113년 만에 전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파손, 피할 수 없자 1905년 5월 29일 울릉도 저동항에 자침한 러시아 발틱함대의 유물과 잔해와 신일골드코인 백서가 오는 7월 30일 울릉도에서 전세계에 공개된다고 신일그룹이 11일 밝혔다.

건설 · 해운 · 바이오기업인 신일그룹(회장 유지범)은 탐사를 통해 어떤 역사학자도 부정하기 힘든 보물선 돈스코이호라는 증거를 확인했고, 그동안 유럽컨소시엄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비공개 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전사한 돈스코이호 승조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5월 29일 울릉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다. 러시아는 당시 전사한 승조원들을 위로하는 추모제 개최를 꾸준히 요구해 왔고 현재는 돈스코이호가 인양되기를 기다리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추모제가 끝난 후 레베데프 함장의 검과 유물, 152mm 함포 등 잔해부터 우선 바다 밖으로 인양한다고 했다. 본체는 중국 국영기업이자 세계적 인양업체가 추가로 참여해 돈스코이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자 통째로 인양된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발굴되는 150조 금괴, 금화, 보물의 10%인 15조를 울릉도 돈스코이호 추모관, 영화세트장,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사업에 투자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협조해준 울릉도 주민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기부금도 전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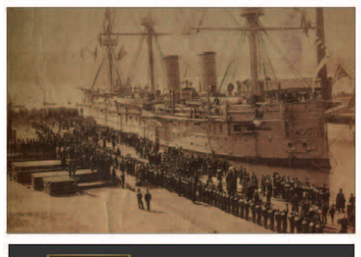
또한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경협사업 및 철도, 도로 기간산업에도 러시아측과 협의를 통해 10% 15조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돈스코이호 사업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철도 및 개발사업을 통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한국에 연결하여 현재 유럽에 치우쳐 있는 가스 판매 국가를 아시아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는 역사적 보물인 동시에 남북평화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는 2019년 상반기 신일골드코인 보유자에게 이익배당으로 지급된다.

인양되는 유물과 잔해는 산화를 방지하는 약품처리와 진공 보존된 특수 강화유리상자에 보관, 7월 30일 울릉도에서 전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신일골드코인 백서도 같이 공개된다.

행사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러시아 푸틴 대통령측 특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신일그룹은 설명했다.

본체 인양은 오는 9~10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세계 최고 인양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얀타이 셀비지가 7월28일 신일그룹 여의도 본사에서 우선협상자 선정계약을 체결하며 돈스코이호를 원형 그대로 통째로 인양한다.

본체 인양과 함께 신일골드코인이 상장되면서 거래서비스를 시작하면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상징성과 이익배당의 기대감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큰 이목을 끌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신일그룹의 의뢰를 받아 탐사인양 기술자문을 총괄하는 진교중(해사28기 전 해군해난구조전대장)은 “이미 돈스코이호가 100%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인한 상태”라며 “탄소연대 측정법 등을 사용해 과학적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유물 · 잔해와 함께 공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
SHINIL GROUP
신일그룹
UTOVILL

SHINIL GOLDCOIN

상담전화 1522-5299